

한글 가사 《한양가》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이영경*

-차 례-

1. 서론
2. 서지적 검토
 -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2.2. 송신용 소장 목판본
3. 국어학적 고찰
 - 3.1. 표기
 - 3.2. 음운
 - 3.3. 문법
 - 3.4. 어휘
4. 결론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한글 가사 《한양가》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한양가》는 한글 가사로서는 드물게 간본으로 남아 있으며, 한양의 모습과 풍물을 상세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당시의 언어 현실, 특히 19세기 국어 어휘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국어사 자료가 된다. 간본으로 현재 2종의 목판본이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①)과 송신용 교주본(1949) 및 후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필사본의 비교를 통해 현재 전하지 않는 송신용본(②)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목판본 2종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목판본 ②는 목판본 ①을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이본이며, 언어 사실에서도 목판본 ①보다 후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1880년에 간행된 목판본(①) 《한양가》는 표기, 음운, 문법 등에서 19세기 국어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휘적인 측면에서 많은 물명과 이들을 묘사하는 다채로운 어휘들의 출현, 한자어 선호 경향, 보수적인 어휘 사용 양상 등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한양가, 한글 가사, 간본, 목판본, 필사본, 송신용, 19세기 국어

1. 서론

이 연구는 19세기 한글 가사인 《한양가》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현전하는 《한양가》란 이름의 가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19세기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과 풍물을 노래한 것이고 둘째는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를 노래한 것이다. 흔히 전자를 ‘향토한양가’ 또는 ‘풍물한양가’라 하고,¹⁾ 후자를 ‘왕조한양가’ 또는 ‘한양오백년가’라 하여 둘을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 《한양가》라는 이름으로 전자를 지칭하기로 한다.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학의 변성과 함께 많은 한글 가사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한양가》는 19세기 후반에 방각본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정도로 널리 향유된 가사이다. 이 방각본은 현재도 전하고 있는데, 이는 《한양가》가 그 문학적인 가치뿐 아니라 국어학적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가짐을 말해준다. 즉 한글 가사 작품으로서는 드물게 간본으로 남아 있어 언어적 분석을 위한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간기를 통해 간행 연대도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언어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 조선 후기 한글 가사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을 위해서도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사는 19세기 한양의 풍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내용과 상세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어, 19세기의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국어사 자료이기도 하다. 예컨대 육의전, 저자 등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이름이 상당수 등장하며, 다양한 풍물을 묘사하는 다채로운 형용사, 부사 어휘들도 풍부하게 나타나는데, 국어 어휘사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상당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한글 가사 작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운문 자료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한글 가사를 비롯하여 국어사 연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1)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한양태평가(漢陽太平歌)’, ‘한양풍물가(漢陽風物歌)’라는 제목의 이본들도 있다.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양가》는 간본과 필사본의 여러 이본이 전한다. 간본의 경우 현재 알려진 것은 2종이 있는데, 하나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1880년 간행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이고 또 하나는 송신용 校註本(1949)의 저본으로 사용된 목판본이다.²⁾ 후자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교주본에 수록된 원문의 언어 사실이 전자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다른 판본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 보니 판본의 성격이나 전자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연구에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간본 2종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을 중심으로 《한양가》의 언어적 양상과 국어학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2. 서지적 검토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 《한양가》는 2종으로, 권말에 <신증동요>만 붙어 있는 것과, 여기에 <한양가시>와 <갑술경가>가 더 붙어 있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국중도본1’, 후자를 ‘국중도본2’라 지칭하기로 한다.³⁾ 이들 중 국중도본1이 더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판단되며,⁴⁾ 국중도본2는 이 판본에 <한양가시> 및 <갑술경가> 1면을 추가하여 다시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⁵⁾ 후자의 경우 추가된 부분의 필체가 앞 부분과 다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자와

2) 필사본의 경우도 간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과, 원래의 내용을 발췌한 요약본이 있다. 《한양가》의 이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최강현(1983), 강명관(2008)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두 논의에 기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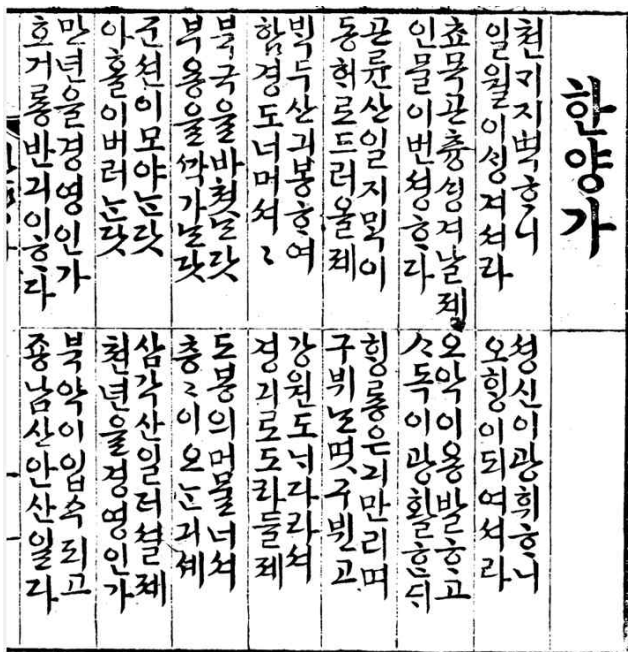
3) 국중도본1과 국중도본2를 구별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는 ‘국중도본’이라 한다.

4) 청구기호 [한古朝48-101]의 책이다.

5) 현재 이 국중도본2와 완전히 동일한 판본이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완전히 동일한 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두 책은 사실상 동일한 판본인 바,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원문 이미지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 국중도본2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이 목판본은 불분권 1책으로 《한양가》 24장과 <신증동요> 1장, <한양가시> 및 <갑술경가> 1장이 합철되어 총 26장으로 되어 있다. 매 면은 상하 2단에, 16행 1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⁶⁾ 권두와 판심에 ‘한양가’라는 서명이 붙어 있으며 순한글로 표기되었다.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중도본2의 본문 1a

이 책의 끝 부분에는 작자와 저술 시기 및 책 간행 연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우선 《한양가》 본문 끝에 ‘세지갑진계춘한산거스저’라는 기

6) 상하 2단으로 나누고 8줄의 계선으로 구획하여, 구획된 각 면에 한 구절씩을 7자 내외의 쌍행으로 써 놓았다.

록이 있어, 갑진(甲辰)년 늦은 봄에 한산거사가 이 가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갑진년은 1844년(헌종 10)으로 여겨진다. 이 가사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수원 화성 능행 광경인바, 위의 ‘갑진’은 화성이 완성된 1796년(정조 20) 이후의 갑진년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1844년이 확실해 보인다.⁷⁾⁸⁾ 즉 《한양가》는 19세기 중엽에 저술된 가사라 할 것이다.

작자인 ‘한산거사’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송신용(1949: 128)에서는 액정서를 찬양하는 내용과, ‘평이하면서도 화려 장엄하고 쾌활 쾌락(快活灑落)’한 문장을 운운하며 이 ‘한산거사’를 『소대풍요』, 『풍요속선』, 『풍요삼선』에 든 인사 또는 그 후예라 추측하였다. 이들 시선집(詩選集) 편찬의 주체가 주로 기술직 중인과 서리들이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작자로 본 셈인데, 강명관(2008: 15~16)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대체로 수용하면서⁹⁾ 나아가 《한양가》에서만 나타나는 ‘승전놀음’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근거로 그 놀음의 주체인 별감 또는 그와 동질적인 부류가 작자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결론적으로 《한양가》의 작자를 서울의 중간 부류에 속했던 인물로 추정하였다.

한편 《한양가》의 권말에 수록된 <신증동요>의 끝 부분에는 ‘세경 진국추석동산간’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 책이 경진(庚辰)년 가을¹⁰⁾ 석동에서¹¹⁾ 간행되었다는 것인데, 이 경진년이 언제인지는 <신증동요>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요’라는 제목 아래에는 “원즈 탄강호신 후 빅성의 동외 거룩하기로 권말에 괴룩호노라”라는 협주가 달려 있다. 즉 <신증동요>는 원자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내용 중의 ‘갑술 이월 초팔일일 원즈 탄강 호서스니’¹²⁾라는 구절의 주인

7) 그 다음의 갑진년은 대한제국 수립 후인 1904년이므로 가능성이 없다.

8) 송신용(1949: 3~4)에서는 본문 내용 중 “건능과 현룡원의 춘달일 령이 낮다 (16a)”는 부분은 헌종 9년(1843)의 능행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한양가》의 저술은 그 이후의 갑진년으로서 이듬해인 1844년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9) 다만 이들 시선집 중 18세기에 편집된 『소대풍요』(1733), 『풍요속선』(1797)은 19세기 인물인 한산거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 ‘국추(菊秋)’는 ‘국화꽃이 피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1) 송신용(1949: 4)에서는 ‘席洞’이라 표기하였으며, 최강현(1983: 250)에서는 지금의 ‘수하동(水下洞)’이라 하였다.

공은 1874년 2월 8일에 태어난 순종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경진년은 1874년 이후의 경진년으로, 곧 1880년(고종 17)에 비정된다. 요컨대 1844년 한산거사에 의해 저술된 《한양가》가 1880년 서울 석동에서 방각본 업자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양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해당 부분(국중도본2)
한양가	서사 - 한양의 지세	1a-1b
	궁궐	1b-4a
	각 관청	4a-8a
	시전(市廛)	8a-11b
	승전 놀음	11b-15b
	능행	15b-19b
	과거(科擧)	19b-23b
	결사	23b-24b
신증동요		25a-25b
한양가시, 갑술경가		2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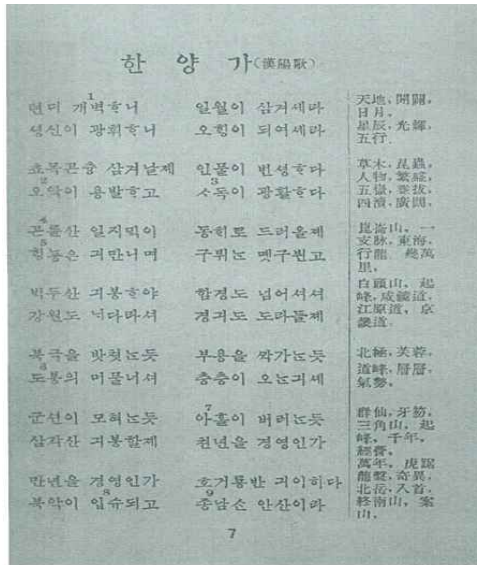
[표 1] 한양가의 구성

《한양가》는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의 번성한 모습과 풍물을 노래하고 있다. 한양의 지세로부터 시작해서 궁궐과 궐내 사람들의 모습, 각 관청과 고유 업무, 시전의 다채로운 모습, 놀이처와 승전 놀음, 왕의 수원 능행 광경, 과거 풍경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조선 역사와 왕에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 권말에는 <신증동요>와, <한양가시> 및 <갑술경가>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신증동요>는 원자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한양가시>와 <갑술경가>도 각각 임금과 원자 탄생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인바, 왕실의 번성을 송축하는 노래들을 함께 수록하여 내용의 완결성을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12) ‘쇼팔일일’은 ‘쇼팔일’의 오자로 보인다.

2.2. 송신용 소장 목판본

《한양가》의 또 다른 목판본으로 여겨지는 것이 송신용 교주본(1949)¹³⁾의 저본이다.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송신용에 따르면 ‘순국문 공채 반초(半草) 목각판본으로 된 소책(小冊)’으로 1면이 16행 상하단이고 가구(歌句)로는 16구이며, 《한양가》 24장 48면 402구 외에 <신증동요> 1장 2면과 <한양가시>, <갑술경가> 1장(반면)을 합해서 총 26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양가》 본문 끝에 ‘세재갑진계춘한산거스저’라는 기록과,¹⁴⁾ 권말에 부록으로 실린 <신증동요>의 끝에 ‘세경진국추석동신간’이라는 기록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그림 2] 송신용 교주본 본문 1쪽

- 13) 송신용이 1929년 신설동의 한 가게에서 구입한 목판본 《한양가》를 주해하여 1949년 정음사에서 『정음문고』의 하나로서 출판한 책이다.
- 14) 국중도본1, 2에는 여기서의 두 번째 글자가 ‘적’로 되어 있다. 이 목판본의 실제 표기가 국중도본과 달리 ‘재’인지 아니면 교주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달라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목판본은 형태서지적인 측면에서 국중도본2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내용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표기나 어휘 사용 등 세부적인 언어 사실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본문의 첫 구절을 비롯하여 ‘序詞’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두 판본의 차이가 적잖이 나타난다. 어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하 송신용 교주본은 ‘교주본’, 이 책의 저본인 송신용 소장의 목판본은 ‘송신용본’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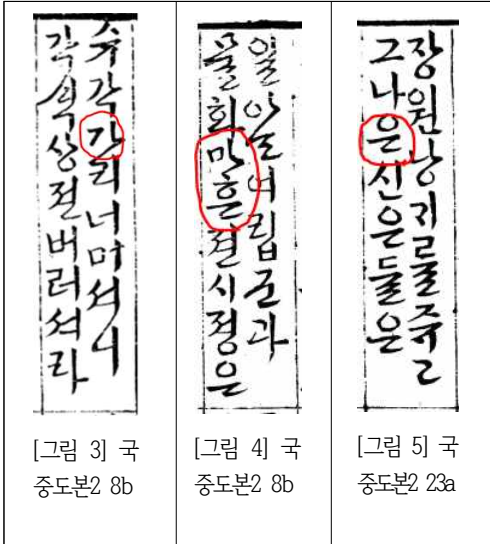
순번	국중도본2	교주본
①	첨기지벽흐니	턴디 개벽흐니
②	싱겨서라, 싱겨날 제	삼겨세라, 삼겨날 제
③	모야는 닷	모혀는 듯
④	일더설 제	기봉할 제
⑤	나리홀너	홀너너러
⑥	멧 구뵈고	멧 구뵈고

[표 2] 두 판본의 어휘 사용의 차이

[표 2]를 보면 두 판본은 표기나 음운 등의 차이뿐 아니라 어휘의 선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강명관(2008: 12)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목판본이 2종 이상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송신용이 자신이 소장했던 목판본을 다른 필사본과 대조해 교합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였다.¹⁵⁾ 즉, 국중도본과 동일한 목판본이 주해자의 개입으로 교주본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이 서사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판본이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교주본의 경우 오자가 자주 보이거나,¹⁶⁾ 국중도본에는 없는 어미의 보충이 있거나,¹⁷⁾

15) 다만 이는 송신용이 대본으로 삼았던 목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며, 그 차이도 어구에 있어서의 사소한 차이일 뿐 상호 확연히 성격이 다른 이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중도본의 표기가 고쳐진 점¹⁶⁾ 등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러한 예들은 동일한 판본의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나 주해자의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연 교주본의 저본인 송신용본은 국중도본과 동일한 판본일까? 송신용본과 국중도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음의 예들은 이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준다.



[그림 3] 국중도본2 8b

[그림 4] 국중도본2 8b

[그림 5] 국중도본2 23a

[그림 3] ~ [그림 5]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국중도본2에 나타나는 오자들이다. 그런데 동일한 오자가 교주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림 3]은 ‘슈각다리’의 ‘다’ 자에서 ‘ㄷ’의 아래 획이 탈획되어 ‘슈각가리’처럼 보이는데,¹⁹⁾ 이를 교주본에서는 ‘슈각가리’로 표기하고 ‘가’자 위에 ‘다?’라고 부기해 놓았다.

[그림 4]는 ‘만흔’을 ‘마흔’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주본에서도 이를 ‘마흔’으로 표기하고 ‘흔’자 위에 ‘튼?’이라 부기하였다.²⁰⁾ [그림 5]는 ‘그나은’을 ‘그나은’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주본에서도 ‘그나은’으

16) 국중도본2의 ‘극상미며(8b)’가 ‘극상이며(53쪽)’로, ‘고양늑이(8b)’가 ‘고양늑니(53쪽)’로, ‘어와 벗님너야(23b)’가 ‘어화 벗님너냐(120쪽)’로 나타나는 등이다.
 17) 국중도본2의 ‘당도리 먼정이며(16a)’가 ‘당도리며 먼정이며(87쪽)’로 접속조사 ‘이’며가 보충된 예 등을 들 수 있다.
 18) 국중도본2의 ‘말리로세(24a)’가 ‘말리로세(122쪽)’로, ‘바다느니(受, 24a)’가 ‘바다느니(121쪽)’로, ‘하엿는고(22b)’가 ‘하엿는고(116쪽)’로 된 예 등이 있다.
 19) ‘각’자와 ‘가’자의 ‘ㄱ’을 비교해 보면 단순한 오자가 아니라 탈획임을 알 수 있다.
 20) 교주본에서는 ‘마튼(말은)’의 오기로 본 듯하며, 강명관(2008: 72)에서도 동일하게 주해하였다. ‘흔’자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 문맥상으로도 ‘물화 많은(물화를 많이 가진)’의 의미가 자연스럽다.

로 표기하고 ‘나’자 위에 ‘남?’이라 부기하였다.²¹⁾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하나는 두 판본이 오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계열의 판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송신용본과 국중도본이 동일한 판본일 가능성이고, 둘째는 송신용본이 국중도본을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또 다른 판본이라는 것이다. 전자라면 현재의 교주본은 송신용이 국중도본과 동일한 판본을 주해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변개를 가하여 제작한 것이 되고, 후자라면 송신용본은 국중도본과 동일한 계열의 이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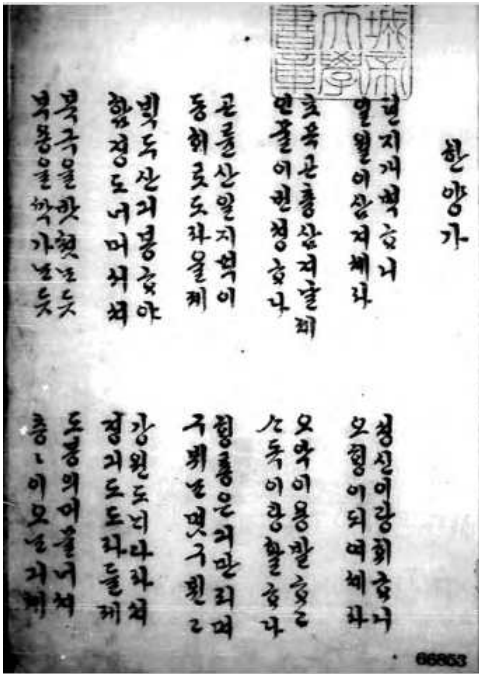
또 하나의 사실은 강명관(2008: 12)에서 제기한, 송신용이 자신의 소장본을 다른 필사본과 대조해 교합함으로써 ‘서사’ 부분에서의 차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다. 원문의 오자를 인지했음에도 원문을 그대로 옮기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휘까지 바꾸는 큰 폭의 수정을 가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주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원문과 다른 표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원문에 변개를 가하는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하면 송신용본은 국중도본을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또 다른 목판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체는 없지만, 교주본에 실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제2의 목판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한양가》의 필사본이 하나 소장되어 있는데,²²⁾ 지질 등으로 보아 20세기 초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서사 부분의 언어 사실이 국중도본이 아닌 교주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어휘들이 ‘턴지개벽, 삼겨세라, 모혀는듯, 기봉홀 제, 흘너늑려’ 등으로 나타나 교주본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는 이 필사본이 교주본의 저본인 송신용본과 동일한 계열의 판

21) 교주본에서는 ‘그 남은’에서 ‘남’의 종성 ‘ㅁ’이 빠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 청구기호 [古 3320-9]인 책이다.

23) 물론 세부적으로 표기나 어휘 등에서 약간의 차이도 보여준다.



[그림 7] 규장각 소장 필사본 본문 1a

본을 대상으로 하여 필사했음을 알려준다. 바꾸어 말하면 교주본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의 판본이 실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주본의 모습이 주해 과정에서 가해진 송신용의 원문 교합이나 변개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는 말이다.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 송신용본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자 《한양가》의 이본 계통 파악에 단서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한양가》의 간본으로는 현재 국중도본과 송신용본의 2종의 목판본이 확

인되며, 두 이본의 차이는 크지 않다. 후자는 전자를 저본으로 하여 언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변개가 가해진 것으로, 형태적으로는 전자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두 판본의 관계는 언어 사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송신용본이 국중도본보다 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²⁴⁾

3. 국어학적 고찰

《한양가》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844년에 저술되어 188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한글 가사인바, 국어학적 측면에서는 19세기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중·후반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귀중한 언어 자료가 된다. 특히 한양의 다채로운 풍물을 상세히 묘사한 내용의 특성상 19세기의 어휘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에 국중도본2를 중심으로 하고 교주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양가》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 등 국어학적 제 특징을 살피되, 특히 어휘의 양상에 중점을 두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표기

국중도본2가 보여주는 표기 양상은 대체로 19세기 국어를 잘 반영하고 있는바, 특징적인 몇 가지만 언급해 보기로 한다. 먼저 어두 된소리 표기는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ㅅ자, 썩, 썩그어, 썩고’ 등과 같이 ‘ㄱ, ㄷ, ㅂ, ㅈ’의 된소리 표기는 ‘ㅅ’계 합용병서로 통일되어 있다. 다만 ‘ㅅ’의 경우는 ‘썩셔(書)’, ‘썩아셔라(積)’와 같은 ‘ㅅ’ 표기와 함께, ‘뿌다(刷)’와 같이 ‘ㅂ’계 합용병서도 나타나고 ‘글시’, ‘스고(着用)’와 같이 평음 표기도 간혹 보인다. 그리하여 같은 어휘에 대해 ‘스고/쓰고/쁘고(着用)’, ‘쌍/쌍/쌍(雙)’, ‘잠썩/잠복’ 등의 혼용 사례도 나타난다.

중성 표기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중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ㄷ, ㅈ, ㅊ, ㅌ’ 중성은 ‘듣기(聽), 빛(光), 갓고(同)’ 등과 같이 ‘ㅅ’으로 표기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시기 문헌에서 적잖이 나타나는 겹받침의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겹받침은 모음 앞에서는 ‘밭근, 밧게, 안즌, 절문, 을퍼’ 등과 같이 거의 연결 표기되고 드물게 ‘기슬이며(기슬)’와 같이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한 예도 보이며, 자음 앞에서는 ‘글고(글-), 밧고(밧-), 말고도(말-), 안고도(안-), 언고(엷-)’ 등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형태로 표기되고 ‘옹겨(옹기-)’와 같이 자음군 단순화 후 비음화가 적용된 표기도 나타난다.

‘·’와 ‘ㅏ’의 표기는 이 시기 대부분의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혼란을 보여준다. ‘순(山), 삼(三), 느라(國), 식/식로(新), 날기(翼)’ 등의 어간뿐만 아니라 ‘가즈(청유형), 할스(감탄형), 썩즈노코(연결어미)’와 같이 어미에서도 광범위하게 표기의 혼동이 나타난다.

모음간 ‘ㄹㄹ’은 ‘ㄹㄴ’으로 표기되어 있다. ‘머물너서, 불너, 놀느울스, 쇠스슬노, 춤일넌가’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ㄹㄴ’으로의 강한 표기 경향을 보여주는 가운데, 국중도본2의 ‘기만리며’와 같은 극소수의 예외도 보인다.²⁵⁾

한편 이 문헌은 동 시기 문헌들이 압도적으로 분철 표기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연철 표기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난다. ‘고든, 마즌, 마튼, 노픈’ 등과 같이 7중성 외 중성의 연철 표기는 물론이고, 특히 ‘ㄹ’ 발음의 경우 강한 연철 표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드러, 미러, 거러, 너다라서, 모라, 느러안져, 물드린, 쭈러; 노리, 노름; 모양드른, 구중드리’ 등과 같이 활용형, 파생어, 복수접미사 곡용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한결같이 연철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중철 표기도 보이는데, ‘웃세, 갓슬, 빛시(光), 글릴넌가’ 등과 같은 완전 복사형과 함께 ‘김플, 갓튼, 덩피, 밧쳐’ 등의 부분 복사형이 ‘싯히, 밧히, 압흘, 엽히, 식히고서(使), 박휘(輪)’ 등의 재분석형과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식여/아로식인(刻), 기달일(기다리-), 납의(鰈), 갈인(가리-)’과 같은 과도 분철의 예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같은 단어가 ‘밧쳐/밧쳐’, ‘눔흔/노픈/눔픈’, ‘나뵤/납의’ 등의 다양한 표기로 나타나는 혼란된 모습을 보여준다.

요컨대 국중도본2는 19세기 국어의 특징인 상당한 표기 혼란을 보여준다. 방각본으로 제작된 판본이기에 더욱 그러한 듯하다. 교주본도 전반적인 경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중도본2보다는 다소 정돈된 모습이 나타난다. 예컨대 본문 1장에는 동사 활용형 ‘되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국중도본의 경우 ‘도여’가 4회, ‘되여’가 2회 나타나는 데 반해, 교주본은 모두 ‘되여’로 일관되게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 형태의 이표기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중도본의 중철 표기나 ‘·/ㅏ’의 오용을 바로잡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교주본이 국중도본보다 후대의 판본임을 말해준다.

25) 교주본에서는 ‘기만니며’로 되어 있다.

3.2. 음운

먼저 구개음화에 있어서 두 판본이 보여주는 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근대국어 문헌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구개음화 반영의 차이를 이들 또한 보여주는 가운데, 두 판본 간에 그리고 본문의 앞뒤 부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유어는 ‘조코, 어진, 부칠(불이-), 크지’ 등과 같이 구개음화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한자어는 ‘던각, 인덩던, 디도던’ 등과 같이 보수적인 표기를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국중도본2의 경우 1장 ‘서사’ 부분에 한해 ‘천기지벽, 성첩’과 같이 한자어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사례들이 나타나 이후의 다른 부분들과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교주본에서는 ‘던디 개벽, 성텃’과 같이 구개음화가 미적용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장에서 반대로 국중도본2의 ‘동묘’가 교주본에서 ‘종묘’로 표기된 예도 있는데, 이는 구개음화와 관계가 없다. 즉 ‘宗’은 원래 한자음이 ‘종’인 것이다. 국중도본2의 ‘돈경각’이 교주본의 ‘존경각’으로 표기된 것도 이와 유사한 예가 되겠다.

‘ㅅ, ㅈ, ㅊ’ 뒤에서의 ‘j’ 삽입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손(手), 소리(聲), 슈레(車), 세(三), 고개 숙여’ 등 ‘ㅅ’ 뒤에서의 ‘j’ 삽입은 이 문헌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업슬쇼나, 그를쇼나, 보쇼’와 같이 어미에도 적용되는 강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중도본2의 1장에는 이 현상에서도 예외적인 ‘입수, 도수구’ 등의 예들이 나타나며 이들은 교주본에서는 ‘입슈, 도슈구’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국중도본2의 1장은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특별한 모습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원순모음화와 전설모음화도 확인된다. ‘노푼, 널분, 불근, 절문, 구슬 푸다, 거문(黑)’과 같은 원순모음화 적용 사례들이 흔히 보이며, ‘질겁 구나, 가진(갖은)’과 같은 전설모음화도 찾아볼 수 있다. 전설모음화와 관련하여 ‘층찬허리(칭찬하리)’와 같은 과도 교정의 예도 보인다.

후음 탈락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양상을 이 문헌은 보여준다. ‘노아(놓-), 쫘아(쑹-), 노여(놓이-)’ 등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서 어간의 ‘ㅎ’ 종성은 대체로 탈락하지만, ‘쪼흔, 쪼흘시고’처럼 같은 환경에서 ‘좋다’의 경우는 결코 어간 말음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흥미롭

다. ‘많다’의 경우는 ‘갑 만흔, 나(歲) 마논’에서 볼 수 있듯이 ‘ㅎ’이 탈락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후음 탈락이 일어나면서 이와 관계없는 형태에 대한 오분석이 빈번히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예컨대 ‘보비로흔, 향기로흔’, ‘고흔, 고희시고’와 같이 ‘ㅂ’ 불규칙 활용형을 ‘ㅎ’ 말음 용언으로 오분석하여 표기한 예들이 흔히 나타난다.

음운적인 측면에서도 구개음화나 ‘ㅅ, ㅈ, ㅊ’ 뒤에서의 ‘ㄹ’ 삽입 등에서 교주본이 한결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3. 문법

조사의 경우, 먼저 주격조사 ‘가’가 완전히 정립된 모습을 보여준다. ‘항아가, 별무스가, 화려가, 즈로가(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형격 조사는 ‘의’로 통일되었으며, 처소격 조사도 대체로 ‘의’가 선택되고 있다. ‘밤중의, 방의, 밧긔, 보기의, 댋긔의도’ 등과 같이 ‘의’의 빈번한 사용을 보여준다. ‘(쪼흔 말)게, 말게논’에서처럼 ‘말’의 여격조사 통합형이 ‘말게’로 나타나는 것도 눈에 띄는데, 이 형태는 이 문헌을 포함하여 19세기 자료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

어미에 있어서는, 가사체에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우선 눈에 띈다. ‘-구나, -니, -르다, -어셔라/어세라, -르세/(이)로세, -르시고, -르스(외로울스), -르손가, -르쇼냐’ 등 주로 감탄이나 수사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사용이 빈번하며, ‘-즈셔라, -쇼’와 같은 청유, 명령의 어미들도 보인다. ‘-르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의문형어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길쭈 명천 가는 뵈는 바리 안의 드는 뵈다(9a)”, “물쭈지디 장홀시고 제왕의 도읍일다(11b)”와 같이 계사 여간 아래에서 ‘-이로다’의 축약형으로 사용되었다. 시구의 자수(字數)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⁶⁾²⁷⁾ 의문형 어미의 경우 ‘몇 구뵈고, 내려온가,

26) ‘-르다’의 이러한 용법은 “북산호라 흐는 사릅 글과 인물 웃듬일다 <일동장유가 3:14a>”와 같은 예에서처럼 18세기 후반의 운문 자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27) 교주본의 경우 본문 1장에서 국중도본의 ‘안산일다’, ‘한양일다’, ‘스직일다’가 모두 ‘안산이라’, ‘한양이라’, ‘스직이라’로 되어, ‘-르다’가 계사 ‘-이라’로 고쳐지고 있다. 이 부분만 유독 그러한데, 송신용본의 반영인지 송신용의 언어가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뉘신고, 기백 간(幾百間)고, (어이 알아)그리섯노’ 등에서처럼 여전히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구별이 유지되고 있다. 명사형어미 ‘-기’ 사용의 확대도 주목되는바, ‘(습약)헉기 일습으니, 보기의 신기하다, 경박헉기 측양업다, 어질기는 요순(堯舜)이요’ 등과 같은 표현이 빈번히 나타난다. ‘령이 낫다, 보헉엇다, 응헉엇고’ 등에서처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앗/엇-’의 정립도 확인된다.

조어와 관련한 특징으로는 우선 접미사 ‘-롭-’에 의해 파생된 다양한 형용사의 등장이 주목된다. 풍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은 만큼 ‘변화로운, 예스러운, 보비로흔, 신기롭다, 향기로흔, 효롭기느’ 등과 같은 ‘-롭-’ 파생 형용사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와 함께 접미사 ‘-스럽-’이 결합된 ‘식스러운’과 같은 파생 형용사도 소수 보인다. 또한 ‘집집이, 문문이, 보보(步步)이, 귀귀(句句)이, 짐짐이(荷物), 빵빵이, 식식이로’와 같이 명사 접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부사의 사용이 빈번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3.4. 어휘

《한양가》는 한양의 풍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내용과 자세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 한양의 연혁, 풍속, 문물, 제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유명사와 물명이 망라되어 있어 특히 어휘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어휘에 있어서 국중도본2와 교주본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서사 부분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앞의 표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국중도본2	교주본
①	천기지벽헉니	턴디 개벽헉니 ²⁸⁾
②	싱겨서라, 싱겨날 제	삼겨세라, 삼겨날 제
③	모야는 닷	모혀는 듯

28) 교주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④	일더설 계	기봉할 계
⑤	나리흘너	흘너너려
⑥	멧 구뵤고	멧 구뵤고
⑦	고동어 ²⁹⁾	고도어

[표 3] 두 판본의 어휘상의 차이

①은 두음법칙 적용 여부의 차이 외에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예로서, 한자 구성은 동일하지만 배열이 다른 한자어(사자성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한글 자료에서는 국중도본2의 ‘천기지벽’(天開地闢)형보다 교주본의 ‘툰디 개벽’(天地開闢)형이 훨씬 많이 사용된다.³⁰⁾ 교주본에서 ‘툰디 개벽’으로 고쳐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다.³¹⁾ 이와 유사한 예가 ⑤이다. ⑤는 같은 의미이지만 구성 요소의 배열이 반대인 합성동사가 각각 사용된 흥미로운 예이다. 국중도본2의 ‘나리흐르-’형은 현대국어 ‘내리흐르-’의 소급형인데, 이 책 이외에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³²⁾ 교주본의 ‘흘너너려-’형은 17세기 『동의보감탕액편』(1613)에 처음 나타난다.³³⁾

②는 국중도본2의 ‘싱기-(>생기-)가 교주본에서 ‘삼기-’로 나타난 예인데, 전자가 후대형이고 후자가 선대형이다. ‘싱기-’는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지만, 선대형인 ‘삼기-’도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다. ③은 ‘숯’을 의미하는 자동사로서 국중도본2에서는 ‘모이-’가, 교주본에서는 ‘모히-’가 사용된 예이다. 전자가 후대형이고 후자가 선대형이다. ‘모히-’는 18세기 중엽부터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 ‘모히-’에서 유성음 사이 후음 탈락이 일어나 ‘모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⑥에서 교주본의 ‘멧’은 의문관형사 ‘멧’의 방언형으로 보인다.

29) 이 어휘는 ‘서사’가 아니라 ‘시전’ 부분에 나오는 것이다.

30) 한문 텍스트를 제외하고 한글자료에서 ‘천기지벽’형이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20세기 자료인 『적벽가』와 『경향보감』(1907)에서만 두 예가 발견된다.

31) 엄밀히 말하면 ‘송신용본’에서 고쳐진 것을 교주본이 반영한 것이다.

32) 가능한 이표기인 ‘느리흐르-, 너리흐르-, 나리흐르-, 내리흐르-’ 모두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33) 屋露水 디새집 우히셔 흘러느린 물 <동의보감탕액편 1: 16a>

④는 국중도본2에서는 고유어 ‘일터셔-’가, 교주본에서는 한자어 ‘기봉ᄃᆞᆫ-’(起峯)가 사용된 것이다. ‘일터셔-’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매우 드문 동사로서,³⁴⁾ 현대국어의 ‘일떠셔-’의 직접적 소급형이다.³⁵⁾ 합성동사로 판단되지만 ‘셔-’(立) 앞의 ‘일터’가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⑦은 국중도본2에는 ‘고동어’, 교주본에는 ‘고도어’가 사용된 것이다. 전자가 후대형, 후자가 선대형이다. ‘고도어’는 18세기부터 문헌에 등장하지만 그 한자 표기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古道魚, 高道魚, 高刀魚, 古刀魚’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도어’는 ‘고동어’로 발전하는데, 여기서 제2음절의 중성에 ‘ㅇ’이 생긴 것은 한자 ‘魚’의 음이 15세기에는 ‘ㅇ [ŋ]’ 초성을 가진 ‘어’였기 때문이며, 이는 ‘붕어, 잉어, 농어’ 등이 원래 ‘부어(鮒魚), 리어(鯉魚), 로어(鱸魚)’에서 발달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특히 이 국중도본2에 나타나는 ‘고동어’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예로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동어’의 최초 출현 예는 19세기 말 『국한회어』의 “고동어 古東魚 <곤: 25>”였는데 이 《한양가》의 예를 통해 보다 시기가 앞당겨진 19세기 중후반의 예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판본의 어휘 사용 양상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국중도본이 개신형 쪽을, 교주본이 구형 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본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면 후자가 어휘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결과는 반대인 것이다. 예가 적어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이는 교주본이 어휘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⁶⁾

서사 부분을 제외하면 두 판본의 어휘는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가사는 한양의 풍물을 노래한 것으로서 다양하고

34) 조선 후기 가사 작품인 『금강별곡』에 ‘일져셔-’의 예가 하나 나타난다.(안문영雁門嶺이 일져셔셔 혈망봉穴望峰이 되어 잇고 <531ㄱ>)

35) ‘일떠셔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운차게 썩 일어서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듯하다.

36) 국중도본의 ‘서사’ 부분은 이러한 어휘적 측면 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운 면에서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약간 발전된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서사 부분만 수정되어 나중에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풍부한 물명이 나타난다. 특히 육의전, 저자 등에서 취급하는 물품으로 등장하는 상당수 물명들은 19세기 어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물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선 및 어물(魚物)	민어, 석어, 석수어, 도미, 준치, 고동어, 낙지, 소라, ³⁷⁾ 오적어, 조기, 식우, 전어, 복어, 관목, 꼴독이, 통딤구, 광어, 문어, 가오리, 전복, 희슴, 가즈미, 곤포, 메옥, 다스마, 파틱. 김, 우무가시
실과(實果)	청실늬, 황실늬, 건시, 홍시, 조홍시, 밤, 디도, 잣, 호도, 포도, 경도, 외얏, 석류, 유즈, 복성와, 룡안, 여지, 당딤쭈
곡식	하미, 중미, 극상미, 찹쌀, 좁쌀, 기장쌀, 록두, 청떡, 적두, 팻, 마떡, 중떡, 기름떡
잡화	면빚, 참빚, 어레빚, 솜지, 쯤치, 허리씩, 총전, 보료, 모탄즈, 간지, 쥬지, 당쥬지
약	인슴, 스슴, 감초, 응담, 구담, 스담, 청심환, 소함환, 녹용고, 경옥고
약기 ³⁸⁾	거문고, 양금, 생황, 통소, 죽장고, 피리, 저, 해금, 장구

[표 4] 《한양가》 속 시전의 주요 물명

이 밖에도 옷감(베, 비단), 종이, 당물화(唐物貨), 패물, 그림, 복식(服飾) 등과 관련된 많은 물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생소한 한자어들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위 [표 4]의 물명 중 특히 생선 및 어물과 관련된 물명이 풍부한데,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모두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당시 사용 빈도가 더 높았던 ‘조기’, ‘오증어’ 대신 ‘석수어(石首魚)/석어(石魚)³⁹⁾’, ‘오적어(烏賊魚)’가 사용되었다. 반면 ‘가즈미’, ‘가오리’, ‘꼴독이’처럼 고유어가 사용된 예도 있는데, 이들은 각각 ‘鰈魚(접어)’, ‘鯢魚(공어)’, ‘望潮魚(망조어)’라는 대응 한자어가 있지만 이 한자어들이 고유어 물명에 대

37) 교주본에는 ‘소라’로 되어 있다.

38) 약기 관련 물명은 ‘시전’ 부분이 아니라 ‘승전 놀음’에 나오는 것이다.

39) ‘석수어’와 ‘석어’는 둘 다 조기를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 한자 표기에만 사용될 뿐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예가 없다. 이러한 양상은 실과(과일) 관련 물명 ‘디도(大棗)’와, 약 관련 물명 ‘스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당시에 훨씬 일반적이었던 ‘대초/대추’와 ‘더덕’을 대신하여 사용된 한자어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어 선호 경향은 전술한 어휘 사용의 보수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며, 노래 곳곳에 등장하는 한시와 더불어 이 가사의 작자가 시선집 편찬에 참여한 문식성 있는 중인 계층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하겠다.

이 밖에 위에서 제시된 ‘파티’, ‘우무가시’, ‘보료’와 같은 물명들은 본문 중에 나오는 ‘여립군’, ‘다람박질’, ‘직씨리’ 등과 함께 이 가사를 전후하여 출현하는 19세기 국어 어휘라는 점에서 주목될 만한 어휘들이다. ‘손떡(손뽕)’도 이에 해당하는 특이한 형태의 어휘인데, 15세기의 ‘슌떡’이 ‘손뽕’⁴⁰⁾을 거쳐 ‘손뽕’으로 발전하는 한편으로, 제2음절이 경음이 아닌 유기음으로 된 ‘손떡/손떡’이 19세기 중후반부터 소수 문헌에 등장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풍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위해 사용된 ‘얼늬덜늬, 알송달송, 살살, 잠썩’ 등의 의성의태어도 흥미로운 예들이다.

한편, 방언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나타난다. ‘모냥(貌)’, ‘구영(穴)’, ‘쯔른(短)’, ‘실고/실는(신-)’, ‘디려(물을 들이-)’, ‘젓게쓰고(제껴쓰-)’, ‘가진(갖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어이 알아) 그리셨노(2b)’에서의 의문형 어미 ‘-노’도 방언의 영향으로 여겨진다.⁴¹⁾

4. 결론

이 연구는 19세기 한글 가사인 《한양가》를 국어학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양가》는 19세기 후반에 방각본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정도로 널리 향유된 가사이다. 이 방각본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2종의 목판본이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과 송신용 소장본이 그것인데, 후자는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고 1949년

40) 근대국어 시기에 ‘손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41) 대체로 동남방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간행된 교주본으로만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본 2종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 그 국어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두 판본은 형태서지적인 면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표기나 어휘 사용 등 세부적인 언어 사실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차이에 주목하여 대개 두 판본을 서로 다른 이본으로 간주하지만, 송신용이 교주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필사본과 대조해 교합함으로써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판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자에 대한 교주본의 수용 방식을 토대로, 교주본의 저본인 송신용본이 국중도본을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이본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교주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필사본의 존재를 통해 현재 전하지 않는 송신용본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두 간본과의 관계를 정립한 후, 국중도본을 중심으로 《한양가》의 국어학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기 면에서 국중도본은 19세기 국어의 특징인 상당한 표기 혼란을 보여준다. 교주본도 전반적인 경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일 형태의 이표기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중도본의 중철 표기나 ‘·/ㅏ’의 오용을 바로잡기도 하는 등 보다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음운 면에서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교주본이 국중도본에 비해 구개음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두 판본의 표기, 음운의 양상은 교주본이 국중도본보다 후대의 판본임을 잘 보여준다. 문법 면에서는 두 판본이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주격조사 ‘가’의 정착과, ‘-이로다’의 축약형으로서의 종결어미 ‘-르다’의 쓰임, 접미사 ‘-롭-’에 의한 파생형용사와 ‘명사첩어 + 이’의 파생 부사의 조어 등이 특히 주목되었다.

《한양가》는 19세기 한양의 풍물을 읊은 가사인 만큼 다양한 물명이 등장하고 있어 어휘론적 가치가 특히 높은 자료이다. 두 판본의 어휘 사용 양상에서 전반적으로 국중도본이 개신형 쪽을, 교주본이 구형 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교주본이 어휘 사용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물명 중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모두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후자를 더 선

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한자어 선호 경향은 노래 곳곳에 등장하는 한시와 더불어 이 가사의 작자가 시선집 편찬에 참여한 문식성 있는 중인 계층이라는 추정에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방언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에도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한양가》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이 한글 가사가 가지는 국어학적인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한양가》의 필사본들에 대한 논의는 향후의 과제로 삼기로 하며, 이 연구가 한글 가사를 비롯하여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Linguistic Study on Hangeul Gasa(歌辭) Hanyangga

Lee, Yeonggyeong(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linguistic examination of Hangeul Gasa(歌辭) "Hanyangga", a work written in the 19th century. "Hanyangga" is a rare example of Hangeul Gasa work that has survived in published editions and provi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ights and customs of Hanyang(present-day Seoul). So it serves as a valuable source for studying the language of the time, particularly the vocabulary of 19th-century Korean. Currently, two versions of the woodblock prints have been identified in published edition. In this study, I indirectly verified the existence of the now-lost Song Sinyong edition(②) by compar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woodblock print edition(①) with the Song Sinyong's annotated edition(1949) and a manuscript version that shares the same features as the latter. Furthermore, I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odblock print versions. According to the findings, woodblock print edition ② was produced based on edition ① and reflects a later stage in terms of linguistic aspects. The woodblock print edition(①) "Hanyangga" published in 1880 vivid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19th-century Korean language in terms of orthography, phonology, and grammar. Notably, in the lexical aspect, it displays distinctive features such as the appearance of many object names and various words describing objects and phenomena, a preference for Sino-Korean vocabulary, and

conservative word usage patterns.

Key word : Hanyangga, Hangeul Gasa(歌辭), Published Edition, Wood-Block Print Edition, Manuscript, Song Sinyong, Korean Language of the 19th Century

[참고문헌]

■ 단행본

강명관, 『한양가 (한국어세계화재단, 100대 한글 문화유산 78)』, 신구문
화사, 2008, 11-31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규장각 소장 어문학 자료 - 어학편 해설』, 서울
대학교 규장각, 2001, 407-408면.

박성의, 『농가월령가 · 한양가 주해』, 예그린출판사, 1978, 78-181면.

송신용, 『한양가』(「정음문고」), 정음사, 1949, 3-128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이윤석, 「방각본 「한양가」 연구」,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159-194
면.

최강현, 「향토 한양가(漢陽歌)의 이본(異本)을 살핌」, 『배달말』 8, 배달
말학회, 1983, 249-265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양가 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